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 연구

배화숙*

¹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Study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Hwa-Sook Bae*

¹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 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애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 which that was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n 2013, was used. Four key findings were made: first,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are 7.2% and unemployed is 22.3% of occupational accident workers who finished the treatment period; second, 31.5% of laborers who returned to a new workplace went into another type of occupation;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 years, injury-related factors, such as the treatment period and work limitation, and workplace factors, such as company size and employment status, were associated with the return to work; and fourth,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people who has received occupational training could not return to work and the disability grad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return to work.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and develop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the transitional labor market.

Key Words : Job Injured Worker, Labour Market Transition, Return to Work, Transitional Labour Marke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감소추세에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여전히 년 2,000명 정도를(2013년 1,929명) 유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자수도 매 해 8,000여명 내외 (2013년 7,627명)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재해율은 10,000명당 재

해근로자가 59명에 이른다[1].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고령, 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만 산재 이후 근로

*Corresponding Author : Hwa-Sook Bae(Catholic Univ. of Pusan)

Tel: +82-51-510-0674 email: peacebhs@cup.ac.kr

Received October 14, 2014

Revised (1st November 12, 2014, 2nd November 21,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 요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2], 조사대상자의 93.4%가 임금근로 형태를 희망하고 있으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또한 산재장애인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일자리 확보 등에 대한 요구도는 높았으나 직업훈련 같은 서비스는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이후 일자리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준다.

노동시장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등은 취약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산재근로자가 일자리 복귀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가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행노동시장 관점을 검토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일반 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상태인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혹은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하는 전 과정, 실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모든 과정에서 단순히 요양급여 제공을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을 먼저 고찰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둘째,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이행노동시장관점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과정에서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적용시켜 논의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 논의의 토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연구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재해근로자의 이행노동시장

2.1 이행노동시장 개념과 논의 의의

노동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등장으로 복지국가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걸음으로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인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이행노동시장에 관한 논의는 산업재해,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책인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행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비경제활동인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 보완장치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게 한다. 따라서 이행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유효한 이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소득보장을 별개로 보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행노동시장론은 각 이행단계별 사회적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이를 위한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는 고용-훈련-복지 연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4].

이행노동시장 개념은 분석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를 포함한다. 분석적 측면에서 이행노동시장은 개인의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고용지위 및 관계 간의 이행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규범적 측면에서 이행노동시장 개념은 위험관리제도이다. 그 주요이념은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5].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의 고용안정성 혹은 취업가능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노동시장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단시간 노동과 전일제 고용 간 또는 피고용 노동과 자영업간의 이행 지원, 실업과 고용 간, 가사활동과 취업 간,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6].

2.2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의미와 전달체계를 검토한 도성화(2014)의[2] 연구에 따르면 산재장애인에게 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며, 산재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직업재활서비스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산재 장애인의 경우 사후관리 차원으로 취업된 이후에도 직장생활 적응 과정에서 불편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고 조정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직업재활의 단계이다[7].

이와 같이 산재로 인한 장애등급 유무, 경중과 관계없이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노동시장의 재진입과 적응 등은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대표적인 문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Schmid가[8] 노동시장이행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위험을 정리한 유길상의[4] 연구 내용 중에서 산업재해 근로자가 당면할 수 있는 위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한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더 나은 고용상태로의 이행 곤란, 실업 시 빈곤의 위험 및 재취업의 어려움, 고용훈련과 고용 간의 원활한 이행 곤란을 들 수 있다.

원천적으로 사회적 임금조차 낮은 영세사업장에서 더 나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점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등 노동시장이행지원의 핵심적 주체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장애인 관련 정책은 취업정보, 취업지원,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등이다. 산재로 인한 장애인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기에 원천적인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 역시 산재근로자를 위한 특성화된 지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제도는 공식 노동시장 근로자를 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세기업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더 나은 고용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혜택도 대기업에 비해 영세기업 근로자의 혜택이 적다[4]. 산업재해 발생에서도 더 취약한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이 근로자가 산재 이후 일자리 복귀와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으로 살펴보게 한다.

2.3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시장이행 과정에 있는 근로자들은 경계노동력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계노동력의 취업으로 이행에 대한 논의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 규명에 적용할 수 있다.

경계노동력이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취업 가능성이 없는 사람 등을 가리킨다[9]. 경계노동력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요인을 연구한 김가을에[9] 의하면 가구주 여부, 6세 미만 자녀여부, 가구소득, 연령, 혼인상태, 학력, 성별, 지역실업률 등의 변수 중에서 경계노동력 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유의한 설명 변수들은 가구주, 연령, 학력이었다. 가구주인 경우, 주 근로층보다 청년층이, 고졸자에 비해 중졸이하 저학력자가 취업으로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관련 요인을 연구한 박수경에[10] 의하면 직업복귀 단계별 성과지표와 관련 있는 요인들은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와 생활비 책임여부, 장애등급과 주관적 신체능력 등이었고, 직장에서의 지지나 산재 전 직장규모가 각 단계별 지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미 외 3인의[11]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예측요인 연구에서 성별, 연령, 사업장 특성이 직장복귀 예측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도 박수경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인 구학적 요인, 산업재해관련 특성, 직장관련 요인 그리고 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이행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예방, 완화하고 위험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12].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의 제도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비스 요인을 포함하였다. 노동시장이행과 각 요인들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산재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산재보험패널 ver.1이다. 모집단은 2012년 1월에서 12월 동안 요양종결 근로자 82,493 명으로, 지역과 장애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를 먼저 층화하고 성별, 연령, 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통추출하여 총 2,000명을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13년 8~10월 걸쳐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13] 자료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1차 공개한 패널자료에서 조사대상자를 일자리 복귀 여부에 따라,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재취업한 일자리의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을 찾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시점 4주 이내 구직활동 없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므로, 비경제활동으로 응답한 자 중 경제활동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14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 희망을 표현한 응답자들은 실업집단으로 포함시켜 집단을 새롭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변수를 선정하여 관련성 여부를 구분한 집단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명목 요인에 따른 집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χ^2 검정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구학적 사항과 산재이후 변화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분석한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84.3%이고, 연령은 50대가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26.1%, 60대 이상이 18.0%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 18.9%, 초졸 16.8%, 대졸이상 15.4% 순이었다. 산업재해로 인해 가진 요양기간은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4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초과 9개월 미만이 24.2%, 3개월 이하 16.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Category			N	%	Category			N	%
Age	20's	118	5.9	Sex	Man	1,886	84.3		
	30's	295	14.8		Female	314	15.7		
	40's	522	26.1		below 3 m.	322	16.1		
	50's	705	35.3		than 3m.-less than 6 m.	826	41.3		
	60's+	360	18.0		than 6 m.-less than 9 m.	483	24.2		
Edu. back ground	No Sch.	73	3.7	Care period	than 9 m.-less than 1 y.	164	8.2		
	Elementary Gradu.	336	16.8		than 1 year-less than 2 y.	153	7.7		
	Middle . Gradu.	378	18.9		than 2 y.	52	2.6		
	High Gradu.	906	45.3						
	over University Gradu.	307	15.4						

Table 2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재 당시 고용형태에서 산재 후 고용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준다. 임금근로자였던 1,993명 중 66.9%는 임금근로 고용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산업 재해 이후 실직한 대상자가 22.3%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7.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3.7%가 자영업으로 고용형태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Labou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Employment Status before Job Accident			
		Wage E.		Self E. & Employer	
		N	%	N	%
Employment Status after Job Accident	Wage E.	1,333	66.9	2	28.6
	Self E.	65	3.7	4	57.1
	Unpaid Family Workers	8	0.4	0	0
	Unemployment	444	22.3	1	14.3
	Inactivity E.	143	7.2	0	0
		1,993	100.0	7	100.0

[Table 3] Change of type of Occupation

Employment Type after job Accident	type of occupation, same or not					
	Yes		No		Total	
	N	%	N	%	N	%
return to pre-injury job	672	96.7	23	3.3	695	100.0
work at a new firm	420	65.4	202	31.5	642	100.0
Self-Employed	21	31.3	46	68.7	67	100.0
Total	1,113		271		1,404	

Table 3은 일자리로 복귀한 대상자 중 원 직장으로 복귀한 자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대상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복귀한 직장에서 산재 이전에 맡았던 원 직종과의 동일성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주를 제외하고 일자리로 복귀한 1,404명 중 원 직장으로 복귀한 대상자는 695명으로 49.5%였고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한 사람은 45.7%로 원 직장 복귀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원 직종과의 동일 여부이다. 원 직장에 복귀한 사람들의 96.7%가 원 직종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이들 중 31.5%가 원직종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파직종이 동시에 바뀐 것인데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산업재해와 요양 등을 이유로 직장을 이동하는 것은 직장유지와 적응, 그리고 직무만족도 등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직종변경은 산재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필요 요건일 수 있으나 기존 수행했던 직종과의 차이로 인한 적응의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의 지원은 비정규직 등 여타 취약 근로자와는 별개로 노동시장 재진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직장유지와 직무개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2 노동시장이행 관련요인 분석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일자리 복귀 여부로 대상자를 구분하

[Table 4] Factors Related to Labour Market Transition of Job Injured Workers

category		return to work after job accident																
		return to work(n=2,000)					return to pre-injury gov(n=1,412)					work at a new firm (n=717)						
		Yes		No		χ^2/t	Yes		No		χ^2/t	new firm		Self E.		Unpaid F. w.		χ^2/F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Sex	M	1220	72.4	466	27.6	16.037*	587	48.1	633	51.9	4.393*	565	89.3	61	9.6	7	1.1	.546
	F	192	61.1	122	38.9	**	108	56.3	84	43.8		77	91.7	6	7.1	1	1.2	
Age	less than 40	318	77.0	95	23.0	10.263*	175	55.0	143	45.0	5.544*	123	86.0	18	12.6	2	1.4	2.386
	than 40	1094	68.9	493	31.1	*	520	47.5	574	52.5		519	90.4	49	8.5	6	1.0	
Education Years		1,412	11.127	588	10.068	6.538***	695	11.574	717	103.693	5.382***	642	10.572	67	10.194	8	10.125	1.060
levels of disability		1,412	9.52	588	9.34	.814	695	9.55	695	9.50	.201	642	9.62	67	8.57	8	7.25	2.075
Care period		1,412	2.37	588	3.09	-11.264***	695	2.30	717	2.43	-2.136*	642	2.44	67	2.28	8	2.88	1.243
Ability on job Performance		1,412	6.32	588	5.41	7.237***	695	6.61	717	6.04	4.984***	642	6.02	67	5.96	8	7.75	2.689†
Satisfaction of Company's Support		1,412	3.08	588	3.49	-9.310**	695	2.79	717	3.37	-12.845***	642	3.38	67	3.21	8	3.63	1.454
Company Size	below 9	453	68.1	212	31.9		184	40.6	269	59.4	47.013**	241	89.6	26	9.7	2	.7	-
	10-99	633	69.9	272	30.1	7.789**	299	47.2	334	52.8	*	302	90.4	30	9.0	2	.6	
than 100		326	75.8	104	24.2		212	65.0	114	35.0		99	86.8	11	9.6	4	3.5	
E. Status	Regular Employee, Self-Employed	857	77.4	250	22.6	55.550**	570	66.5	287	33.5	260.786***	250	87.1	35	12.2	2	.7	-
	Temporary work	555	62.2	338	37.8		125	22.5	430	77.5		392	91.2	32	7.4	6	1.4	
Informed about Services	Yes	411	67.7	196	32.3		200	48.7	211	51.3		190	90.0	21	10.0	0	0.0	3.463
	No	1,001	71.9	392	28.1	3.507†	495	49.5	506	50.5	.073	452	89.3	46	9.1	8	1.6	
Job Training	Yes	34	33.3	68	66.7	79.916*	4	11.8	30	88.2	19.556**	26	86.7	4	13.3	0	0.0	-
	No	1,378	72.6	520	27.4	**	691	50.1	687	49.9	*	616	89.7	63	9.2	8	1.2	

*: p<.05, **:p<.01, ***:p<.001, † :p<.1

고, 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을 원 직장 복귀 여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원 직장 외에 취업한 이들을 새로운 직장,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로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연수, 요양기간, 업무수행능력, 사업장의 지원 만족도, 산재 전 직장 규모,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 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임시, 일용직이었던 경우는 상용직이 77.4%가 복귀한 데 비해 일자리 복귀 비중이 6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산재 당시의 직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일자리 복귀 비율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자리로 복귀한 사람들 중 직업훈련 받은 대상자는 소수였고,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n=1,412) 중 원 직장 복귀 여부와 관련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산재 후 일자리 복귀와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과 동일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40대 이상의 원 직장 복귀율이 40대 미만에 비해 그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주관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좋은 것은 원 직장 복귀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준 반면 장해등급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산재 당시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원 직장 복귀 비중이 높았으며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는 원 직장 복귀율이 높았으나 임시, 일용직은 77.5%가 원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대상자는 원직장이 제공한 편의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하여 원 직장으로 복귀한 이들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 경험 있는 사람들은 원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훈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원 직장 복귀 여부에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양 종료 후 받은 직업훈련은 일자리복귀 여부와 마찬가지로 원 직장 복귀 여부에서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원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산재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자영업 혹은 무급가족 종사

자 등 고용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이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연수, 요양기간, 직업훈련 등은 임금근로자, 자영업 등의 재취업처 형태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9개의 서비스 중 직업복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 직장 복귀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안내,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안내, 취업알선에 관한 안내, 창업지원에 관한 안내 네 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하나이상 안내를 받은 것과 전혀 받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요인은 산재 후 일자리 복귀, 원직장 복귀 여부, 재취업처의 고용형태 등으로 구분한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준 것이 전혀 없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요양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기능에서는 제한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원직장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원 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의 96.7%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으로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특수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셋째,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임시, 일용직이었던

경우는 상용직이었던 이들보다 일자리 복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산재 전 직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일자리 복귀 비중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직업훈련 경험자 중에서는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원 직장 복귀 여부와 관련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연령, 요양기간, 주관적 업무수행능력, 직장규모, 종사상 지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준 반면 장애등급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임시, 일용직은 77.5%가 원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요양 종료 후 받은 직업훈련은 일자리복귀 여부와 마찬가지로 원직장 복귀 여부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노동시장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행노동시장 관점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등이 요양과 재활을 넘어서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가 심하거나 요양기간이 길어져 자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산재 근로자의 약 1/4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기존 급여와 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원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담당했던 동일한 직종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산재후 불가피하게 직종을 변경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취약 근로자,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 등과는 달리 산재 후 다른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동시에 직종도 바뀔 수 있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직장 유지와 직무만족도 향상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노동시장이행의 각 단계에서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이행노동시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존의 재활과 소득보장을 넘어서는 지원의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서 산재 당시 중소규모의 직장 근로자, 임시 혹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자리 복귀, 원 직장 복귀에 있어서도 기존 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산재 이후 직업재활과 직장 복귀에서 산재 이전의 잠재적 차별 요인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이들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직업훈련과 같은 이행노동시장과 관련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과 일자리 복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서비스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실업자를 조기 인지한 다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복지 급여 지출액과 서비스 등 총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선진국 경험과 실증 연구 통해 입증되었다는(Carters, 2009)[14] 것을 적용한다면 이를 산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한 본 연구는 1회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역동성을 면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후 산출될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 보완하는 것이 추후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욕구의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이행노동시장 관점과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White Paper on Employment and Labour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moel.go.kr>(accessed Sep., 26, 2014)
- [2] Sung-Wha Do, “A Study on Supporting Management Strategies of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7(2), pp.249-269, 2014

- [3] Kyung Soon Park, Do Hyeon Yoon, "A New Paradigm for the Reform of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 Policy: "Transitional Labour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3(4), pp.207-230, 2010.
- [4] Kil-Sang Yoo, "Proposed Development Program for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rom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Perspective", *Labour Policy Research*, 12(2), pp.131-164, 2012.
- [5] Do Hyeon Yoon, Kyung Soon Park, "Transition from Education and Training to Work in European States - From Perspective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heory",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20 pp.207-230, 2010.
- [6] Hwasook Bae, "A Study on Characters of Intersections in Flexibility and Security for Exploring Ways to Apply Flexicurity Polic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40(4), pp.425-445, 2013.
- [7] Yuiyoung Kang, Woon Hwan Na, Introduc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NanumeuiGip Publishers, 2001.
- [8] G. Schmid, Transitional Labor Market: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ZAB Discussion Paper FS I 98-206*. 1998.
- [9] Ga-yul Kim, "Labour Force Status Dynamics of Non-employment and Their Affecting Factors", *Labour Policy Research*, 6(1), pp.1-37. 2006
- [10] Soo Kyung Park, "Successful Return to Work and Related Factors Among Job Injured Workers in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6(3), pp.293-318, 2012.
- [11] W.M. Jung, C.Y. Park, J.W. Koo, Y.M. Rho, "Predictors of Return to Work in Occupational Injured Work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15(2), pp.119-131, 2003.
- [12] Ye-Rin Lee, "Comparing Welfare States Based on a Typolog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 Policy Regimes" pp.1-183, 2013
- [13]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User Guide to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 2014
- [14] G. Caters, Australia's Employment Services: Assisting disadvantaged job seekers, *WAPES 8th World Congress*. 2009.

배 화 속(Hwa-Sook Bae)

[정회원]



- 1996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역사회복지